

값싼 재료에 비싼 생각을 담조

February, 2017 | 이향휘 기자 사진/ 김재훈 기자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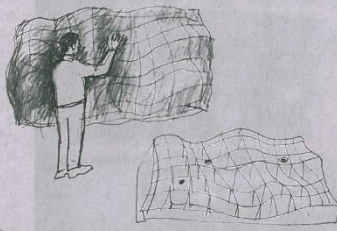
2017년 2월 22일 수요일
매일경제 A31

국제갤러리서 개인전 갖는 조각가 안규철

“값싼 재료에 비싼 생각을 담조”

지하 작업실 바닥엔 먼지가 자욱했다. 독일산 태백의 돼지표 붓도, 나무를 자르는 톱과 각종 배케, 공구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몸은 안 쓰고 입으로만 작업한다’는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킬 만한 작업실다운 모습이었다. 서울 삼성로 국제갤러리에서 ‘당신만을 위한 말’(Words Just for You)을 테마로 개인전을 여는 ‘미술계 이단아’ 안규철(61·한예종 교수)의 작업실이 다.

전시 오프닝을 앞두고 며칠 전 북한산 자락에 자리한 평창동 작업실을 찾았다. 그는 “공구를 모으는 취미가 있다. 한때는 목수가 되려 했다”며 결연하게 웃었다. 그는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을 던지기로 유명한 작가다.



‘당신만을 위한 말’ 드로잉.

**‘당신만을 위한 말’展
형태·고정관념 깨는
설치·회화 25점 선배
‘예술가란 질문하는 사람’**

그가 이번엔 상업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화적인 수사에 치중했던 직전 전시와 달리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물의 상태와 물성에 주목했다.

“미술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생각과 그것을 담는 그릇(재료). 재료나 만들새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지만 그곳에 동원했던 생각의 무게에 대한 관심은 덜하죠. 저는 미술 작품을 정신적 가치로 판단되길 바랍니다. 값싼 재료를 가지고 비싼 생각을 담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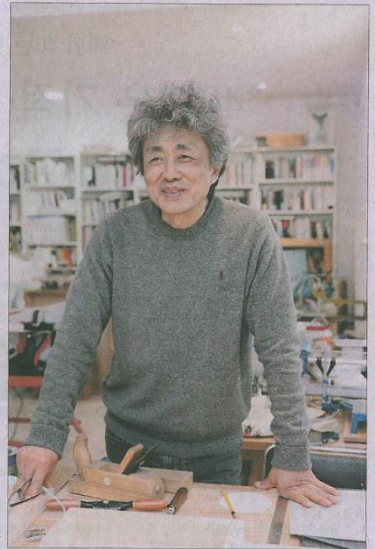
그런 태도를 추구하죠.” 공을 낙하시키는 설치 작업도 눈길을 끈다. ‘머무는 시간 I, II’는 전시장 벽면에 지그재그 형태로 미세한 경사를 이루며 설치된 목재 레일 구조물을 따라 나무 공이 천천히 굴러 내려가게 한 설치작업이다. 관람객이 직접 공을 떨어뜨리는 참여형 전시다. “공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면 1초도 안 걸려 땅에 떨어진다. 이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죠.”

‘공의 활강’을 일부러 늦추도록 써 그는 정해진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계곡에서 물이 흘러 내릴 때, 그 물이 웅덩이 같은 데 머무는 그 시

간에 힘이 자라고 나무가 자랍니다. 살도 어찌 보면 태어나서 계속 사라지는 것을 향해 가는 건데, 이 머무는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글이나 말이 아니라 오브제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전시 제목이 된 작품 ‘당신만을 위한 말’은 모든 소리를 블랙아웃처럼 뺏아들이는 전희석 펠트로 만들어진 부조 형식의 작업이다. 벽 앞 좁아 파인 곳에 관람객들은 고개를 파묻고 아티에도 할 수 없었던 비밀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다. ‘당신만을 위한 말’을 하라고 작가가 재촉하는 것이다. 전시는 3월 31일까지. (02)3210-9885

이향휘 기자·사진/김재훈 기자



서울 평창동 작업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안규철.

조각 하면 형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는 이미 세워진 형태의 고정관념을 허물어리는데 주력한다. “세상엔 형태를 만드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사람하고 경쟁해서 더 나은 형태를 만드는 것은 세계 과학 육심이라고 생각해요.”

반(反)조각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만들어진 작품들은 사물과 일상을 낯설게 보기를 권한다. 이를테면 전시장에서 선보인 ‘노/의자’는 의자긴 한데, 의자의 네 다리가 배를 짓는 노의 모습이다. 배를 짓는 노가 되고 싶어하는 의자를 의인화한 것이다. ‘두 대의 자전거’는 두 대의 자전거를 반으로 갈라 자전거 손잡이는 또 다른 손잡이와 맞닿아 있고, 안장은 또 다른 안장과 맞닿아 있는 부조리한 상태로 재구성했다. 어디로 갈 수도 없

고 제자리에 머물 수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그렸다.

표범이 되고 싶은 양, 소리가 나지 않는 ‘침묵의 종’ 등 여간가 여간나 있는 사람들이 전시장에 주배치돼 있다. “하디마르 작은 사물들조차 타란 무엇이 되기를 꿈꾸는데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를 질문하고 싶었어요. 무엇이 당신에게 의미할 줄 모르니까.” 서울에서 태어나 군의관인 아버지를 따라 춘천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서울대 조소과 졸업 후 독일에서 7년간 유학하고 돌아와 1997년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상업성과는 다소 거리가 먼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물적 토대가 됐다.

2015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전을 열며 그의 이름 석자를 각인시킨